

독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2021년 5월 10일 (KIST 유럽연구소 변재선 책임연구원)

1. 연방상원, 백신 접종자와 완치자에 대한 코로나 규칙 완화 동의 (Bundesrat stimmt zu, Corona-Regeln werden für Geimpfte und Genesene gelockert)

생성기관

Tagesspiegel

원문 작성일

2021-5-7

원문 링크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mehrheit-gegen-sofortige-erleichterungen-corona-regeln-werden-fuer-geimpfte-und-genesene-gelockert/27168938.html>

- 연방상원 완화 규정 최종 의결 : 반응은 엇갈림
- 백신 예방접종자와 치유자에 대한 코로나 규칙을 완화하는 조례가 연방하원 의결에 이어, 금요일 연방상원에서 최종 승인됨
 - 독일 연방정부는 백신접종자와 치유자의 감염 위험이 낮기에 접촉 제한, 통행 금지 및 엄격한 격리 규칙 등의 기본권 제한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
- 독일 ARD 방송을 위한 infratest dimap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은 연방정부 의결 내용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음
 - 조사 대상자 40%는 완전 백신접종자와 치유자에게 접촉제한 및 통금 등의 조치를 면제받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반면 5%는 이러한 완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함
 - 찬성하는 사람 48%는 즉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51%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에만 효력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사민당(SPD) 라우터바흐(Lauterbach)는 몇 주안에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기에 3주 동안 조절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독일에서 **Astrazeneca** 백신에 대해 우선순위가 해제되어 모든 희망자들이 접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연방정부 제안에 따르면 의사는 예방 접종자와 상의하여 4주에서 12주 간격으로 1,2차 접종 간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 독일 가정의협회(Hausärzteverband) 울리히 바이겔트(Ulrich Weigeldt) 회장은 모두가 당장 글로벌 책임감에서라도 이미 승인된 **Astrazeneca** 백신을 접종할 것을 호소함
 - 인도, 브라질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독일에서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터무니없는 논쟁이 있다고 주장함

- 도르트문트 공대, 라이프니츠 노동연구소(Leibniz-Institut für Arbeitsforschung)의 면역학 연구부 카르스텐 왓츨(Carsten Watzl) 교수는 예방접종 전략상 접종 간격 단축은 잘못된 단계라고 비판함
 - 이것은 1차 백신 접종을 통한 조기 면역 보호자가 감소됨을 의미
 - 3차 유행을 완화를 위해 기저질환자들을 백신으로 보호해야 하며, 필수적인 2차 접종을 시행할 충분한 시간이 여름에 있다고 언급함

2. 지금 바뀌는 것, 백신접종자 및 치유자는 일요일부터 더 많은 자유를 갖음
(Was sich jetzt ändert, Geimpfte und Genesene haben ab Sonntag mehr Freiheiten)

생성기관

Tagesspiegel

원문 작성일

2021-5-7

원문 링크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was-sich-jetzt-aendert-geimpfte-und-genesene-haben-ab-sonntag-mehr-freiheiten/27154242.html>

□ **백신접종자/치유자에 대한 변경 내역**

- 백신 예방접종자와 감염후 회복자에 대한 코로나 규칙을 완화하는 조례가 연방 상원에서 최종 승인됨
 - 연방 법무부 크리스티네 램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장관은 이 규정이 이제 일요일에 발효될 수 있다고 확인함
 - 2차 백신접종후 15일부터 완전 접종자로 인정되며, 6개월 이내에 감염되어 회복된 사람은 치유자로 간주됨

- 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들은 무제한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규정됨
 - 야간 통금시간과 같은 출구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자가 격리 의무가 없음
 - 마스크 착용 요구와 거리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위생 규칙은 계속 적용됨
 - 시행시 경찰이 모임제한이나 통금시간을 적절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중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월요일 로버트 코흐연구소(RKI) 자료에 따르면 독일 시민 28%가 현재 코로나 백신을 1회이상 접종받았고, 8%가 완전 접종을 받았음
 - 예방접종 패스외에도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의원, 예방접종센터 및 약국에서 제공해야함

- 독일호텔숙박업협회(Dehoga) 잉그리드 바르트게스(Ingrid Hartges) 대표는 침체된 호텔, 레스토랑 및 야외 케이터링이 개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

※ **백신접종 및 치유자에 대한 규정 요약**

- ① **비공개 회의:** 저녁 식사, 파티 또는 카드 게임과 같이 완전 접종자와 회복자들만 모일 경우 제한 없이 가능, 모임 인원 제한에서 집계되지 않음

- ② **통금 시간 :** 연방정부 비상 브레이크에 따른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음

③ 증거 제시 의무 : 일단은 아날로그 방식 노란색 예방접종 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스마트폰이나 인쇄된 QR 코드로 증명하여야 함

- 백신 완전 접종자

- EU에서 승인된 백신(Biontech, Moderna, Astrazeneca, Johnson & Johnson) 백신을 접종하여야 함, SputnikV는 아직 미포함
- 2차 접종후 최소 14일이 경과되어야함 (J&J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 치유자

- 최소 28일에서 최대 6개월 전 "PCR 검사 양성 증거"를 제공해야 함
- 감염 6개월이상 지난 경우에는 1회 백신 접종 필요(통상 2회접종), 이 경우 PCR 검사 양성과 백신접종 증명서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좋음

④ 검사자와 동일한 권리 : 미용실 방문 등 테스트 음성 결과 제시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

- 4인 가족 여름휴가 호텔 숙박시 부모는 예방접종 카드를 보여주고, 자녀들은 신속 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
- 박물관, 극장, 레스토랑, 펍, 클럽 및 피트니스 재개장도 동일함

⑤ 특별 개장은 없음 : 백신접종자만을 위한 식당이나 영화관 등의 특별 개장은 비접종자의 불만을 고려하여 포함되지 않음

⑥ 격리 해제 : 코로나 위험지역에서 오는 귀국 항공편에서 테스트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함, 격리 요구도 없음

- 예외: 바이러스 변이지역에서 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격리 의무는 계속됨

○ EU 집행위는 관광객과 여행자들이 EU에 다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자들의 입국을 허용할 계획임

- 슈판(Spahn) 장관은 EU의 제안에 찬성하였으며, EU 전역에서 유효한 디지털 예방접종 인증서가 6월말에 제공될 것이라고 추정함

3. 코로나 뉴스 라이브 블로그 (Live Blog Coronavirus-Pandemie)

생성기관
Tagesschau
원문 작성일
2021-5-7
원문 링크
https://www.tagesschau.de/newsticker/liveblog-coronavirus-freitag-229.html#Sechs-Bundeslaender-wieder-unter-der-Schwelle-von-100

□ 코로나 단신 업데이트

○ 연방정부 특허보호의 필수성 강조 (Bundesregierung betont Notwendigkeit von Patentschutz)

-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 공개 가능성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는 지적재산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특허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
- 독일과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방안으로 노력중이며 관련 회사도 헌신하고 있음을 주장

○ 화학협회 특허보호 해지 경고 (Chemieverband warnt vor Aufhebung des Patentschutzes)

- 화학 협회 VCI, Wolfgang Große Entrup 대표는 백신에 대한 특허보호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이러한 선례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긴급 경고함
- 제약 부문뿐만 아니라 독일의 혁신적인 연구와 제품개발에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

○ 슈판 장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 축소 옹호 (Spahn verteidigt verkürztes Intervall bei AstraZeneca)

- 다음 주부터 백만회분 AstraZeneca 백신이 독일 의원에 전달, 우선순위 관계 없이 접종될 예정이며 접종간격을 12주에서 최대 4주로 단축할 수 있음
- 간격 축소로 효과가 감소되어도 휴가일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슈판 장관은 1차 접종으로도 보호되고 낮은 수용성은 방역에 좋지 않다고 답변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학교에서 롤리 테스트 도입 (NRW führt "Lolli-Tests" an Schulen ein)**
 - 다음 주부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PCR 풀 테스트를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 예정
 - 어린이에게 더 친화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롤리 검사(Lolli-Tests)"로 기존 신속항원 검사를 대체할 것임
 - 1주일에 두 번 시행될 "롤리 테스트"는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능한 감염 사슬을 더 빨리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학생들은 단지 30초 동안 면봉으로 빨아서 검사를 하게되며 약 3,800개 학교 대상으로 매일 약 35,000 테스트가 필요함

- **영국 전문가, 40세이하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대안을 권고 (Britische Experten raten unter 40-Jährigen zu AstraZeneca-Alternative)**
 - 영국 예방접종위원회(JCVI)는 AstraZeneca 백신에 대한 연령 권장 사항을 지금까지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변경
 - 18세에서 39세 사이에게는 가능하거나 예방접종을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향후 대체 백신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발표함

- 4. **슈판 장관 아스트라제네카 조기 접종 제안, 2차 접종간격 단축시 예방효과 대폭 감소 (Spahns Vorschlag zur schnelleren Impfung mit AstraZeneca, Kommt der zweite Impftermin schneller, sinkt der Schutz deutlich)**

생성기관

Der Spiegel

원문 작성일

2021-5-7

원문 링크

<https://www.spiegel.de/wissenschaft/medizin/astrazeneca-impfung-gegen-coronavirus-vier-wochen-abstand-verringern-die-wirksamkeit-deutlich-a-c0baf474-508e-47ad-acf4-861918239214>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차 접종 간격 단축시 효과 저감

-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유회복으로 인해 백신 접종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화됨
 - 그러나 AstraZeneca 백신 접종자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원래 기준으로는 3개월간, Biontech/Pfizer, Moderna 백신 6주, Johnson & Johnson 백신 1회 접종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함

- 슈판(Spahn)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을 12주에서 4주로 단축하는 "실용적인" 제안을 발표, 휴가 계획은 쉬워지지만 효과 저감은 우려됨
 - 2021년 2월말, "The Lancet" 데이터에 따르면 접종간격 3개월 경우 질병의 위험을 80%까지 낮춤,
 - 반면에 접종 간격 6주 이하에서 위험을 55%까지 줄일 수 있었음, 55% 효능치도 양호하고 효과적인 백신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충족함
 - 그러나 접종 간격을 늘리는 적은 노력으로 최대 1/4까지 효과가 증가, 독일 상설예방접종위원회(Stiko)도 4월초에 6주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 권장함,
 - 또한 1차 접종만으로도 일정수준 보호되는 사람들을 빨리 늘릴 수 있음

- 독일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긴 논쟁이 진행됨
 - 불과 몇 주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데이터 부족으로 고령자 그룹에게 권장되지 않고 대신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게만 제공됨
 - 이후 희귀한 뇌정맥동 혈전증 등의 부작용으로 고령층에게 권장되었지만 예약율은 저하, 60세 미만에게는 접종센터에서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았음

- 이제는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주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우선 순위 지정을 취소(일반 의원을 통해 모든 희망자에게 접종)
 - 그러나 접종 간격 3개월을 두면 젊은 층은 접종 간격이 짧은 다른 백신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시점에 완전 접종을 하게 될 것임
 - 슈판(Spahn) 장관은 향후 의사의 "의학적 재량"에 따라 누가 어떤 백신을 언제 받을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완전 접종시 예방효과는 의료전문가의 재량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일지 결정될 것임

5. 코로나 백신, 유럽연합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종료 (Corona-Impfstoffe, EU lässt Vertrag mit AstraZeneca auslaufen)

생성기관
Tagesschau
원문 작성일
2021-5-9
원문 링크
https://www.tagesschau.de/ausland/europa/coronavirus-impfung-astrazeneca-109.html

- 유럽연합 법정분쟁중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계약 갱신 불희망
- 유럽연합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집행위원은 계약이 종료되는 6월이 후 AstraZeneca사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표
 - 브르통(Breton)은 AstraZeneca가 "매우 좋은 백신"이라고 판단하지만, 수차례의 공급 약속 미준수로 인해 유럽연합과 제조사간 법적분쟁중임
 - 올해 상반기 합의된 3억 회분 대신 약 절반 이하의 백신 용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4월 26일 EU 집행위는 AstraZenec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4월말에 진행된 1단계에서 결정적인 화해를 이루지 못함
 - 유럽연합 변호사들은 계약에서 명기된 영국,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 모든 생산 공장에서 즉시 백신을 공급할 것을 요청함
 - 아스트라제네카측 변호사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유럽의약품청(EMA)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Vaxzevria에 대한 안전성 보고서에 대한 정기 평가의 일환으로 희귀 신경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 (Guillain -Barre Syndrome) 사례를 조사중이라고 금요일에 발표
 - BioNtech사와는 2023년까지 코로나 백신 18억 회분을 추가 계약함
 - 브르통(Breton) 집행위원은 2세대 백신을 위한 추가 연구와 산업 시설 변경 등 추가 비용이 증가될 수 있음을 언급, 적절한 시기에 발표 예정

6. 상설예방접종위원회(Stiko)의 새로운 권고, 연방·주정부 Johnson & Johnson (얀센)백신의 우선 순위 해제 (Neue Empfehlung der Stiko, Bund und Länder heben Priorisierung beim Impfstoff von Johnson & Johnson auf)

생성기관
Der Spiegel
원문 작성일
2021-5-10
원문 링크
https://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bund-und-laender-heben-priorisierung-beim-impfstoff-von-johnson-und-johnson-auf-a-0b87c4bf-6595-41ce-afea-d19734b94305

- 독일 정부 : 얀센백신 우선순위 해제 결정
- 독일 연방·주정부는 디지털 회의에서 본래 60세 이상에게 접종 권고된 Johnson & Johnson사의 얀센 백신에 대해 우선순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함
 - 옌스 슈판(Jens Spahn) 보건부 장관은 독일에서 60세 이상의 60% 이상이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 실용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자 J&J 백신에 대한 우선 순위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
 - 독일에서 60세 이상 백신 접종 희망자가 아직 5~6백만명 정도가 아직 있음
- 상설예방접종위원회의 새로운 권고에 따라 희귀 혈전증에 불구하고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권장과 같이 백신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
 - Spahn 장관은 의사와 상담 후 상설예방접종위원회 권고에 따라 60세 미만도 얀센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얀센백신은 3월부터 EU에서 승인되었지만 지금까지 거의 접종되지 않았음
 - 슈판(Spahn) 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급된 J&J 45만 회분 중 일부만 독일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 지역과 비영주권자에게 접종됨
 - 6월말과 7월에 1천만 회분 이상의 얀센 백신 공급 예상, 그때까지 많은 노인들이 이미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선택 옵션임

7. 최대 10억 회분 백신, 바이오엔텍사 중국과 합작 투자사 설립 (Bis zu einer Milliarde Impfdosen, Biontech bildet chinesisches Joint Venture)

생성기관

T-Online

원문 작성일

2021-5-10

원문 링크

https://www.t-online.de/finanzen/boerse/news/id_90006968/corona-impfstoff-biontech-bildet-chinesisches-joint-venture.html

- **바이오엔텍사 중국 푸싱의약그룹과 합작**
- Biontech사는 중국 상하이 푸싱의약그룹(Shanghai Fosun Pharmaceuticals)와 합작 회사를 설립, 총 2억 달러 투자, 최대 10억 회분 백신 중국 생산 예정
 - 푸싱(Fosun)사는 Biontech의 중국, 홍콩, 대만 및 마카오 독점 파트너임
 - 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파트너는 협력에 1억 달러 투자
-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바이오엔텍은 생산기술과 백신 라이선스에 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중국 파트너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음
 - 두 그룹은 합작회사에서 동일한 주식을 보유, 푸싱(Fosun)은 또한 1억 8240만달러의 신용 가치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음
- 바이오엔텍 (화이자) 백신은 아직 중국에서 승인되지 않았지만, 월요일 아침 주식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함
 - 유럽연합이 2023년까지 18억 회분의 (바이오엔텍/화이자)백신을 추가 주문할 것을 발표한 것도 주가에 반영됨
 - Biontech 주가는 월요일 오전에 168유로로 개장(지난 금요일 150유로 마감)
 - 중국 파트너 푸싱(Fosun Pharmaceuticals)의 지분은 월요일 아침에 18% 상승 정오에 슈투트가르트 증권 거래소에서 주당 6.49유로 기록

8. 시노팜, 국제보건기구 최초로 중국 백신을 긴급 승인 (Sinopharm, WHO erteilt erstem chinesischem Corona-Impfstoff Notfallzulassung)

생성기관

Pharmazeutische Zeitung

원문 작성일

2021-5-10

원문 링크

<https://www.pharmazeutische-zeitung.de/who-erteilt-erstem-chinesischem-corona-impfstoff-notfallzulassung-125595/>

□ 중국 시노팜 백신 승인 관련

○ 세계보건기구(WHO)는 최초로 중국 시노팜(Sinopharm) 백신을 승인, 중국이 백신을 코박스(Covax) 프로그램에 제공한다면 글로벌 예방접종 캠페인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중국은 이미 2월에 많은 빈곤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국제 UN예방 접종 프로그램인 Covax에 천만회분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 독립적인 자문위원회 SAGE는 18세 대상으로 시노팜 백신을 승인, 완전 보호를 위해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하며, 79% 효과를 나타냄

○ Biontech/Pfizer, Astrazeneca, Janssen(J&J)과 Moderna 백신이 이미 WHO의 긴급 승인(EUL-Emergency Use Listing)을 받았음,

- 시노백(Sinovac)사의 두 번째 중국 백신과 러시아 Sputnik V, 그리고 미국 Novavax사의 백신이 WHO에 의해 평가중임

○ 유럽연합, 미국 및 자체 규제당국이 있는 많은 국가에서 WHO의 긴급 승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백신 성분을 직접 확인하고 승인을 결정함

- 그러나 자체 과학적 테스트를 수행 능력이 없는 국가는 자체 승인을 위한 기준으로 WHO의 안정성과 효과성 테스트 결과를 사용

-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시노팜(Sinopharm), 시노백(Sinovac) 등 기타 중국내 생산 백신을 포함하여 자국에서 2억회 이상 백신이 투여됨
 - 1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약 80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등 해외로 배송됨
-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Sinopharm사는 가격 자체를 지정하지 않고 수량과 수령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상 결정하고 있음
 - 제네바 대학원 연구소의 건강 포털에 따르면 Sinopharm 백신 1회당 18.55 달러에서 거의 35.72달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
 - Biontech/Pfizer 백신 추정가 6.75달러와 23.50달러(19.50유로) 보다 더 비쌌
- 다른 백신과 같이 Sinopharm 백신도 접종자가 허약감 등 약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베이징 근무 62세 독일인은 시노팜(Sinopharm) 접종후 부작용을 느끼지 못하였고, 중국에서 신규 접종 사례가 축적되면서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발언, 시노팜 백신 접종자도 곧 독일로 더 쉽게 여행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현재 중국으로의 출국과 귀국은 어렵거나 불가능, 귀국자는 2주간 호텔 격리

9. 독일인 삼분의 일이 백신 접종 (Ein Drittel der Deutschen geimpft)

생성기관
Tagesschau
원문 작성일
2021-5-10
원문 링크
https://www.tagesschau.de/inland/jeder-dritte-deutsche-erstgeimpft-101.html

- 로버트코흐연구소(RKI) 백신 접종 통계
- RKI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독일인의 삼분의 일, 32.8%가 최소한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함, 9.4%는 완전 접종을 달성
 - 독일 예방접종 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총 3,50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투여, 1차 접종에 2,730만, 2차 접종에 780만 회분이 제공됨

10. 코로나 뉴스 라이브 블로그 (Live Blog Coronavirus-Pandemie)

생성기관	
Tagesschau	
원문 작성일	
2021-5-10	
원문 링크	
https://www.tagesschau.de/newsticker/liveblog-coronavirus-montag-199.html#Englis-che-Behoerden-Todesgefahr-sinkt-nach-Impfung-deutlich	

□ 코로나 단신 업데이트

- **상설예방접종위원회 백신 접종 우선순위 해지 비판 (Stiko kritisiert Aufhebung der Impfpriorisierung)**
 - 상설예방접종위원회(STIKO) 토마스 메르텐스(Thomas Mertens) 의장은 6월에 예방 접종 우선순위를 해제한다는 정부 계획을 재차 비판함
 - 이미 오래 기다린 고위험 집단이 필요한 것 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
 - Stiko 데이터에 따르면 80세 이상은 80%가 1차, 62%가 완전 접종, 70~79세중 350만명(46%)과 60~69세중 730만명(69%)이 4월말 기준 미접종 상태임
 - 기저질환이 있는 젊은 취약 계층도 4분의 1만이 1차 접종을 받았지만 연방 보건부는 6월에 우선 순위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호스피탈리티 산업, 백신 접종 우선 순위 요구 (Gastgewerbe fordert Impf-Priorisierung vorzuziehen)**
 -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업계는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3순위 우선 그룹에 배치해 줄 것을 촉구
 - 독일 호텔 숙박업협회(DEHOGA)와 요식업 산업노조(NGG)는 식품 소매업의 판매 직원과 같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분류될 것을 요구함

- 연구: G7 국가는 코로나 이후 상승을 위해 수조를 확보해야 (Studie: G7 müssen Nach-Corona-Aufschwung mit Billionen absichern)
 - 런던 경제대학원 경제학자 Nicholas Stern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다른 G7 선진국들은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조 달러를 공동 투자해야 함
 - 이를 위해 "회복, 재건 및 전환을 위한 글로벌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
 - 이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콘월(Cornwall)에서 개최될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요청한 것임

- 노르웨이 위원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제외 권고 (Kommission in Norwegen empfiehlt Ausschluss von AstraZeneca und J&J)
 - 노르웨이 정부 위탁 위원회는 AstraZeneca와 Johnson & Johnson 백신 접종을 제외할 것을 권장
 -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해당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발표함

- 독일 쉘레스비히-홀스타인주, 덴마크로부터 5만5천회분 아스트라제네카 인수 (Schleswig-Holstein übernimmt von Dänemark 55.000 AstraZeneca-Dosen)
 - 쉘레스비히-홀슈타인 다니엘 쿤터 주지사는 덴마크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55,000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인수, "큰 기쁨의 날"이라고 발표
 - Schleswig-Holstein주는 늦어도 7월 7일까지 백신을 상환할 예정이며,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중

- 영국 보건당국: 백신 접종후 사망 위험 크게 감소 (Englische Behörden: Todesgefahr sinkt nach Impfung deutlich)
 - 영국 보건 당국은 예방접종후 질병의 치명적 경과에 대한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
 - 영국 공공보건 당국은 Astrazeneca 또는 BioNTech/Pfizer의 1회 접종만으로 사망위험이 약 80% 감소했다고 발표함
 - BioNTech/Pfizer 2회 접종 완료시 위험이 총 97% 감소함